



# 일

# 쿨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동에 자리잡고 있는 白堊의 殿堂,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청사는 보기만 해도 시원스럽다. 5천 2백여 평의 대지이다 연건평 2천 3백37평의 건물

은 경상남도 교육의 총본산답게 우람하고 알차게 세워져 있다.

경남도청의 昌原市 이전과 함께 경남도 교육위원회도 83년 9월23일 이곳 창원시 용지동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여 경상남도 교육의 요람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1980년 7월 제 6대 교육감에 취임한 李水東씨는 경상남도 교육의 總帥로서 연이어 84년 7월에 제 7대 교육감에 연임됨으로서 그의 역량을 또한 번 인정받게 된것이다.

「알찬 교육, 참된 인간」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경남의 3만 교육자들을 교육立國의 정신으로 선진조국 창조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李水東씨

더구나 李水東교육감은 도청이전에 따른 새로운 청사 건립이라던가 이전 문제등 산적한 업무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처리해 나가는 저력있는 인물로도 정평이 나있었다.

경남지부 河成美국장과 李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방문한것이 9월11일. 초가을의 날씨가 아직도 늦더위를 느끼게 한다.

李교육감은 어딘지 모르게 텅텅한 서민적 체취와 함께 친근감을 돌구어 준다.

—— 경상남도 교육의 특색이라던가 교육이념, 자랑거리를 들 수 있다면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남의 모든 교육자들은 教育立國의 정신으로 선진조국을 창조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사랑과 88올림픽을 대비한 선진국민의 자질을 가꾸고 과학적 탐구력을 길러 미래 사회에 대처할 능력배양에 힘을 모으는 한편, 기초와 기본을 다지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평생 학습의지를 길러 알찬 교육으로 참된 인간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인은 국가사회발전에 부응하는 경남교육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교육동지들의 슬기를 모아 誠과 誠을 다할 것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李水東교육감의 상기된 모습에서 경남교육의 앞길은 정말로 창창하구나 하고 기자는 느끼고 있었다.

—— 학생들의 기생충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86, 88등 중요한 국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즈음하여 외국 손님들에게 기생충없는 깨끗한 한국, 선진 한국을 보여주는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집단검사야말로 기생충없는 건강한 체력을 길르는데는 더 할 나위없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율 0%될 때까지는 계속 년 2회의 검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0%에 가까와질수록 검사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재감염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높아지는 억양은 학생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체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결의가 대단하시다.

—— 건협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등 현대병은 문명이 발달 할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소아당뇨병, 소아심장병, 비만증등 어린이들에게도 현대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국민학생, 중학생들의 비만증, 심장병, 당뇨병등이 많이 발병하여 진정한 성인병검사는 어린시절부터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장 시험때도 보면, 간혹 심장병이 발작하여 불행히도 쓰러지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것은 미리 심장병검사를 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태를 모르고 있었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健協이 실시하는 집단검사는 참으로 타이밍이 맞는 적절한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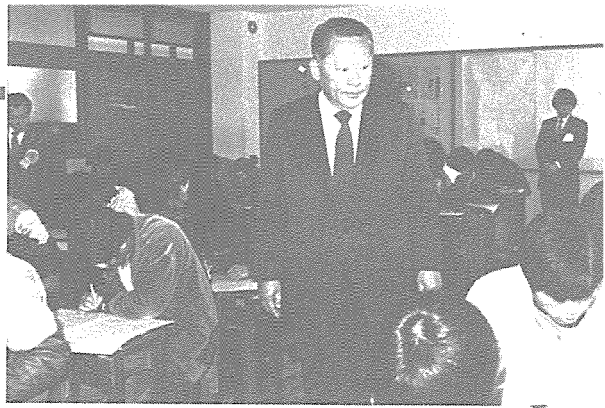
우리 경남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생각입니다.

더구나 심장병 검사등은 집단적으로 실시 권장해서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겠습니다.』

—— 경남교육의 자랑거리라도 있으시다면?

『자랑거리라면 현장교육논문 실사위원회에서 하는 유아교육자료 전시회에

“교육의 내실화와  
지도체제의 정립”을 강조  
하는 李水東교육감의  
교육점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울산의 하주철교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겁니다.

『아동들의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체언을 불요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同席한 金石祚비서실장은 李水東교육감의 인간성을 이렇게 귀띔 해준다.

『우리 교육감님은 인간적 바탕이 가꾸어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德性교육을 중요시하지요.』

또한가지 뵈기에는 너그러우시나 이론이 질서 정연하고 밝으십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독서나 책을 집필하시는등 자신의 인격도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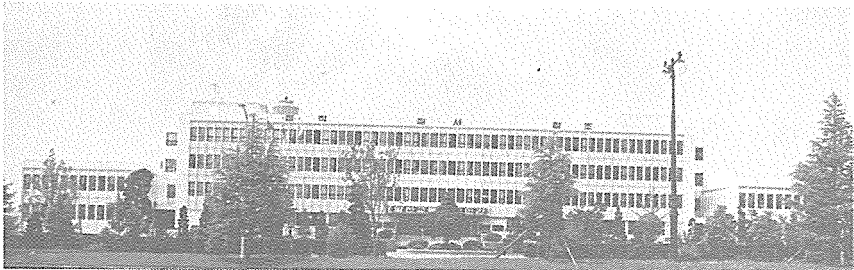
金실장은 또 이런 인간성을 소유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사무적으로 일체의 협조가 잘 되고 人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 李교육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卒.

문교부 장학관, 부산고교 교장, 경남여고교장, 부산시 학무국장, 진주교육대학장등 학사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남도 교육의 정통파이시다.

80년 7월 6대 교육감에 취임 84년 7월에 7대 교육감에 연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인 朴尚南女史와의 사이에 2男2女, 취미는 독서, 저서로 “교육의 내실화와 지도체제의 정립”이란 책을 발간한바 있는 實力派.



▲ 창원시 용지동에 자리한 지상 4층, 지하 1층의 경남교위청사전경